

1

KOICA 개발컨설팅 (DEEP) 프로그램과 서울시 참여방안

문상원 사업총괄팀장 kevin401@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와 KOICA는 개발컨설팅 사업의 개선을 통한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DEEP를 구상하여 기존의 사업요소 간 단절을 극복하고 수원국 참여형 사업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개발컨설팅 사업이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진행된 반면, DEEP는 협력대상국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역량 개발을 통해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한다.

1. KOICA 개발사업의 변화

국제원조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미션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의 실현과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를 통한 범지구적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션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삶의 질로 대표되는 다차원적인 빈곤감소를 내포한다. 즉, 빈곤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여러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의 제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단순 소득의 측면이 아니라 소득을 벌 수 있고 그것을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치, 교육, 사회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원국 역량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공여국의 지식 및 경험전수를 통한 기술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수원국의 제도 및 기술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술협력의 형태가 원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도 개도국 지원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술협력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협력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이하 DEEP)으로 발전시켰다.

DEEP 프로그램 이전에도 개발컨설팅 사업은 존재하였다.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기술제공사업'으로 시작한 한국의 개발컨설팅 사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전조사, 실시설계, 종합계획 수립 등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가 파견 및 용역 발주를 통해 개발조사 형태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KOICA의 일반 프로젝트사업과의 차이

- DEEP는 기술협력 중심 사업으로 다음 측면에서 일반 프로젝트와 다름
 - DEEP는 상대적으로 전략·계획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사업은 기존에 마련된 전략·계획의 실행에 초점을 둠
 - 또한 DEEP사업은 상대적으로 인적자원간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 사업은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둠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부산세계원조총회 개최, G20 개발의제 주도 등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이 다시금 국제사

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고유한 개발경험 전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컨설팅 사업으로는 전문컨설팅, 기자재지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KOICA의 수단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개발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경험 전수를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전통적인 개발조사,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참여적 체계 부족 및 다양한 원조 전달 수단 간의 연계 부족 문제의 극복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지속되었다.

개발컨설팅 사업의 개선을 통한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KOICA는 DEEP를 구상하여 기존의 사업요소 간 단절을 극복하고 수원국 참여형 사업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개발컨설팅 사업이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진행된 반면, DEEP는 협력대상국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역량개발을 통해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한다. 전문가 파견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사업에 초청연수 등 인적자원의 활동과 필수적인 기자재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발컨설팅 패키지를 구성하였다. 역량강화를 사업 목표로 전면에서 명시하고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장려하는 반면,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가지 원칙-개도국 참여적, 결과지향적, 포괄적, 원조조화, 상호책임성-을 강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개발컨설팅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포괄적 사업 지원 원칙을 강조하여 정책 자문과 기술자문, 제도구축, 역량강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업 효과성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구축 혹은 프로젝트 전 단계뿐만 아닌 실질적인 제도운영 및 후속사업을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괄적 사업 추진 원칙을 통해 KOICA 및 타 공여기관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 및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2012년 대비 2015년까지 사업 예산을 2배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늘어나는 개발컨설팅 DEEP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컨설팅 서비스 공급 역량 확대가 필수적인 바 개발컨설팅 인력양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해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 젊은 청년들의 개발컨설팅 사업 참여를 위한 5급 전문가 제도 도입, 사업접수 방식을 협의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발전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DEEP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KOICA DEEP 사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가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선방안과 KOICA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DEEP 프로그램

가. DEEP의 개념

DEEP은 KOICA가 수행하는 기술협력 중심의 국별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Type Project)을 의미하며 통상 개발컨설팅사업으로 지칭한다.

용어 정의

- 기술협력(OECD 산하기구 DAC의 정의)
 - 인적자원 제공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활동(교육, 훈련, 자문)
 - 개도국의 기술, 지식, 노하우, 생산성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 과정
 - 궁극적 목적은 역량개발(개인, 기관, 사회 차원)
- 컨설팅(국어사전)
 -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
- 개발컨설팅(외교부, 2012. 개발협력컨설팅 발전방안)
 -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협력의 한 형태
 - 전문 인력을 통한 단독사업(개발컨설팅사업)과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프로젝트컨설팅서비스)로 나뉨

이러한 DEEP은 협력대상국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해당국의 역량개발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DEEP의 유형

DEEP은 기술협력, 즉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 인적자원의 활동과 그 외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기자재로 구성된다. DEEP 추진 후에는 정책기술자문 보고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실시설계도, 법·규정·제도 등의 산출물이 도출된다.

DEEP은 사업 내용 및 주요 산출물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표1 DEEP 분류

사업유형	상세유형	주요 산출물 예시	사업예시
정책 기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문 기술자문 특정전략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터플랜 보고서 계획문서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국가녹색성장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 200만달러) 우간다 농가공 전략수립 사업(2013-2015/250만달러)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수립 제도도입·이행을 위한 파일럿 정보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규정 (파일럿) 제도 의료보험제도, 국제무역 사제도, 기술자격검정제도, 산업클러스터 등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파일럿 정보시스템 전자정부/공간정보/지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팔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 (2013-2015/450만달러)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사업 (2011-2013/570만달러)
인프라 구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수자원, 댐,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개선 타당성 조사, 설계, 마스터플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보고서 설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250만달러)
인적 지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워크숍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된 인력 수 교육매뉴얼, 교육비디오 공동연구보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 사업(2012-2014/150만달러) 가나 전력분야 역량강화 사업(2012-2014/150만달러)

유형분류상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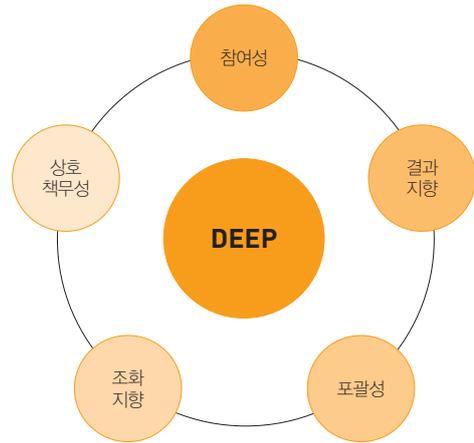
- 각각의 유형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유형을 결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와 같은 경우, 통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장 주된 특성에 해당하는 1개 유형으로 선택 분류함
- 분류를 결정하는 최우선 요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도출된 산출물임
 - 산출물은 개별 사업의 프로젝트기획표(Project Design Matrix) 상에 명시된 산출물을 근거로 결정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라도 계획된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DEEP과 일반 프로젝트 사업으로 별개 분류 가능
 - 계획되지 않은 우연히 얻어진 산출물은 DEEP 사업에 미해당



다. DEEP의 특성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DEEP은 여타 개발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다.

그림1 DEEP의 5대 원칙



- 참여성 (Participatory)**
 - 개도국 인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개도국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도국 상황에 맞는 방안 도출
- 결과 지향 (Results-Oriented)**
 - 투입이 아닌 결과, 성과 및 효과에 기반한 사업 추진
- 포괄성 (Comprehensive)**
 - 제도구축부터 실제 운영까지 정책 자문 뿐만 아니라 기술자문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조화 지향 (Harmonized)**
 - 시민사회단체, 기업, 국제기구, 타 공여기관 등과의 협업 및 다양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 추진
-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 개도국 참여를 전제로,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합의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책임을 짐

첫째, 수원국의 참여이다. 한국 경험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개도국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파트너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성과지향이다. 명확하고 뚜렷한 성과를 제시

하여 컨설팅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 셋째, 포괄적인 사업추진이다. 정책자문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자문, 제도구축, 역량강화 등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KOICA의 타 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한다. 넷째, 공여국과 국제기구 간의 조화이다. KOICA 해외사무소를 활용, 현장에서 개도국, 타 공여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양자기구와의 조율과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책임성이 있다. 개발컨설팅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한국과 파트너 국가 양측의 상호 책임 및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DEEP 사업 추진절차

DEEP 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크게 사업 확인(identification), 사업형성(formation) 및 심사(appraisal), 사업기획(planning), 사업실행(implementation) 및 평가(evaluation)로 진행된다.

DEEP 사업의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 이하 PCP)작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력대상국의 수요 확인은 <그림2> 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2 협력대상국의 수요 확인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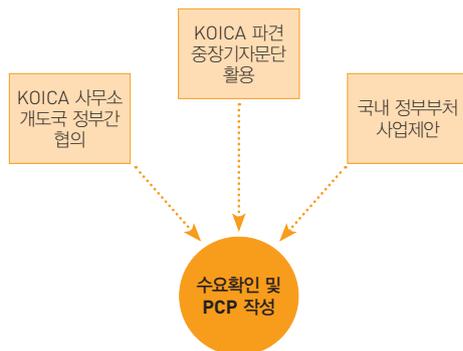


표2 DEEP의 사업추진 절차

단계		진행 절차
사업 발굴	사업발굴 (상시) KOICA 사무소	• 협력국 정부와 정책·실무 협의, 현지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발수요 확인
	↓	
	계획개념서 작성 및 송부 (상시/n-2년 9월한) 재외공관(KOICA사무소) → 외교부(KOICA 본부)	• 수원국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개념서 작성 또는 수원국 제출 계획개념서 확정 • 계획개념서를 사업우선순위와 함께 외교부 (KOICA본부)로 송부
사업 형성 및 선정	↓	
	계획개념서 검토 KOICA 본부	• 접수된 계획개념서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현지 조사 (사업형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사업 기획	형성조사 (상시/n-1년 2월) KOICA 사무소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roject Document 작성 - 현지조사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본부 송부
	↓	
	R/D(안) 협의 (n-1년 10월~) KOICA 사무소	• 사업계획 및 양국 분담사항 확정 (예산심의 및 정부간 합의 통과를 전제로 R/D 체결 가능)
사업 실행	↓	
	정부간 합의(n년초), 실험의(R/D), 집행계획 수립	• 당해연도 추진사업 또는 개별사업에 대해 정부 간 약속(외교부 추진) • 수원국 수행부처/기관과 사업계획 및 분담사항 확정 •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 실행	사업수행 KOICA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
	↓	
	사업평가 KOICA	• 중간 및 종료평가(사업종료 후 1년 내), 사후평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KOICA 사무소와 개도국 정부(수원총괄기관 및 각종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형성이다. KOICA는 주인의식(ownership)이라는 국제원조 원칙에 따라 개도국 정부가 수립한 프로그램을 자금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렇게 개도국 정부가 수립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측에 지원을 요청한 프로그램들

정부부처 제안사업

N-2년 6월	N-2년 7월	N-2년 9월	~
• 부처, 제안서 작성 후 KOICA 본부 송부	• 본부 검토 후 적합사업 사무소 송부	• 사무소, 개도국 정부 협의 후 적합 사업 대상 PCP 작성 본부 제출	• 이후 KOICA 절차와 동일

- KOICA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및 정부부처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제안하는 사업을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중장기자문단 제도

- 컨설팅, 교육훈련 등 DEEP 사업 구성의 특성상,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직접 경험한 우리 중장기 자문단을 활용할 경우 DEEP 사업 형성이 더욱 용이
- ⇒ 중장기자문단은 봉사정신을 갖춘 퇴직(예정)자 등 국내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의 개발능력 강화 및 제도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
- ⇒ 6개월에서 1년간 개도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
 - 교육, 농림수산, 보건,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정책자문 및 기술전수 역할을 수행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
 - 양국 우호협력관계 강화
- ⇒ 모집 및 선발은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KOICA 홈페이지 공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역으로 먼저 사업을 제안하거나 우리나라가 파견한 전문가가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부처가 제안한 사업을 개도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부처 제안사업 방식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자문단이 오랫동안 개도국 정부와 협업하면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DEEP 사업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4. DEEP 사업의 추진 사례

가. 정책자문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

후에(hue)시는 베트남 중부의 후에성 중심도시로서 응옌왕조의 고도 유적지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천혜의 자연경관 자연인향강, 베트남 중부 생물자원 요충지 및 우수한 자연환경 보유, 중앙정부에서 베트남 내 유일하게 축제도시(Festival City)로 지정되는 등 문화·

관광·여행 중심도시로 발전 잠재성이 높은 도시이다. 그러나 1999년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되지 않아 베트남 정부는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을 시급한 발전 과제로 선정하고 KOICA에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24개월) 350만달러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었다.

사업의 주요 성과물은 (1) 후에시 마스터플랜 보고서 발간, (2)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에시가 베트남의 6대 중앙도시로서 승격 예정, (3) 동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내용이 후속사업으로 연계 발전, (4)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 녹색도시 사업의 근간으로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요인은 사업의 결과가 후에시의 도시등급에 주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바탕이 되어 수원국 핵심 의사결정주체와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였고, 과거 유사사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스터플랜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 점과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후속사업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재원의 확충·조달 방안 제시도 높이 평가된다.

나. 기술자문 :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도 작성 사업

동티모르는 석유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탐사기술, 전문인력 및 자원 부재 등으로 국가 주도 지질조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대상지인 수아이 지역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가스

전이 있으나 가스관 유지 및 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지질구조 파악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를 통한 1:250,000의 정밀 지질도 및 지질보고서 작성 및 현지 지질관련 학사 보유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2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 단계에서 동티모르는 한국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국제학술회의 개최, 대학 학과 및 연구소 설립 등의 파급효과를 통해 현지 역량의 증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사업진행 보조를 위해 고용된 8명의 현지인(관련학과 학사 졸업)들이 교육과 사업 참여를 통해 직접 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한편 동티모르 석유지질연구소(IPG) 연구원 및 소장이 되어 현지 전문 인력양성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 제도구축 :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사업

네팔은 그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번번히 실패해 왔었고, 이는 네팔의 사회적·의료적 환경에 최적화된 의료보험 모델이 아닌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의 결과였다. 이에 KOICA는 현지에 적합한 의료보험 모델 도출을 통해 지역 의료보험제도의 확산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대 단초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 실행 인력의 역량강화 및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 인지도강화를 목표로 네팔의 의료보험제도 타당성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주요 성과물은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 데이터화, 시범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의료보험 모델 정립, 지역의료보험 협의체 구성 및 의료보험제도 매뉴얼 개발이다. 네팔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제시한 지역의료보험 모델 중 일부를 채택하고, 5개 지구(district)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자체 확산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체 소규모 지역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던 2개 지역의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시범사업 전 대비 각 100%, 37% 증가하였다. 동 사업을 지켜보던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와 함께 대외개발 파트너(External Development Partner) 그룹을 형성하고, 네팔 정부와 의료보험 정책 관련 정기 협의를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 하다.

라. 역량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혁신 역량강화 2차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지도부로부터 행정개혁과 부패방지가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하였다. 별도의 행정개혁부 조직 등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은 7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2차 사업이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국내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등을 통해 1차 사업은 행정 혁신 액션플랜 수립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사업은 계획 수립뿐만 아닌 실제 실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사업의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추진 동력이 되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왔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행정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었으나 외부의 자문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KOICA의 DEEP 사업을 통해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수원국 수요 맞춤형 사업을 통해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파트너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5. 시사점 및 제언 : 서울시 등 지자체 ODA 사업 개선 및 협력 방안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ODA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개선 및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ODA 사업은 무엇보다 정부의 ODA 정책과의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과 수원국 중심의 효율적 ODA 추진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수원국의 지원전략인 '국가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

다. 지자체 역시 자매도시와 협력 증진이라는 지자체 차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기본목적과 추진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지원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지자체의 ODA 사업이 국내 ODA 정책과 국제사회 ODA 규범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ODA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자체 ODA 사업수행 시스템 개선 및 참여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ODA 사업이 소규모 형태로 단기적, 일회성 성격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종료 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각 지자체의 특성 및 장점을 활용한 개발컨설팅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이 비교적 소규모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인프라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개발컨설팅 즉, DEEP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환경 친화적인 항구도시를 표방하며 항만,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컨설팅, 개도국 연수생 초청,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적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장점인 상하수도, 교통시스템, 도시개발 컨설팅 등을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OICA는 각 지자체들이 보유한 특성이 ODA 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강점과 수원국의 수요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2013. 개발컨설팅(DEEP)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한국국제협력단. 2013.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